

개항기 조일관계 실상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아마다 아라지(山田荒治) 사건(1887年)을 중심으로—

사카이 히로미**

〈차 례〉

1. 머리말
2. 외아문 고용인 아마다 아라지의 사정
3. 소안도 주변 해역 징세 실태
4. 김옥균 암살 시도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개항기 조선의 대 일본 외교를 재구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1887년에 일어난 아마다 아라지 사건의 실태를 밝히고 사건에 대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의 자세와 역할을 검토한 것이다.

아마다 아라지 사건이란 대마도 출신인 아마다가 외아문에 고용되어 소안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시도한 일본 어민들에게 세금을 거둔 행동이 조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된 사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일본 외무성에 남겨진 부책 『朝鮮政府雇山田荒治該政府發給漁稅節目ヲ以テ我漁船ニ對シ徵稅一件』의 분석을 통해 아마다의 사정과 계획, 징세 실태, 김옥균 암살 계획과의 관련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 결과 외아문의 아마다 고용은 개항기 부산, 대마도인들의 특유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

* 본 연구의 출발점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근현대 한국 한국학연구와 동아시아”(2019.10.4.)에서 발표한 「어업문제를 둘러싼 조선의 대일본 외교정책」이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고의 한국어 교정은 국민대학교 강사 김수진 박사와 오사카대학교 강사 김동희 박사에게 도움을 받았다. 감사의 뜻을 표한다.

** 오사카대학교 인문학연구과 교수

이웃음을 알 수 있었다. 외아문은 小通事 출신 조선인들을 아마다와 함께 현지에 파견해 징세 실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면서도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그들의 현지 재량을 넓게 허용했다. 그 연장선 상에는 외아문이 그들을 당시 멀리 小笠原島에 추방되어 있었던 김옥균 암살에 이용하려고 했던 상황도 확인되었다.

외아문은 난항한 「朝日通漁章程」교섭 과정에서 아마다 사건을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복잡한 구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아문의 정책들에 대응해야 했던 일본 외무성은 그 저의를 통찰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노련한 조선 외교에 일본 정부가 휘둘리는 상황도 개항기 조일관계 실상의 한 측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아마다 아라지, 아세, 조일통어장정, 소안도, 김옥균

1. 머리말

완도 화흥포에서 배로 한 시간만 가면 천연기념물인 노란 무궁화 피는 소안도가 있다. 일제강점기 독립지사들을 많이 배출했기에 지금은 ‘항일의 섬’으로 유명한 이곳이 1887년 여름부터 늦가을에 이르는 어업기에 출어 일본 어민을 대상으로 한 징세를 둘러싸고 발생한 아마다 아라지(山田荒治) 사건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887년 4월 대마도 출신인 아마다 아라지는 부산에서 자칭 ‘외아문 주사’ 金萬錫의 중개로 일본 어민 대상 어세 징수 요원으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하 외아문으로 표기함)에 고용되었다. 이 때 외아문은 고용증인 「憑票」와 업무 관련 세칙에 해당되는 「全羅慶尚諸島諸稅收捧節目」(이하 「수봉절목」)을 아마다에게 발급했다. 이 때 외아문 독판은 金允植이다.

외아문에 고용된 아마다는 이 사실을 서울의 일본영사관에 보고하고 4월 하순에 한 번 나가사키로 돌아가 징세 실행 준비를 마친 후 1887년 7월에 협력자들과 함께 조선으로 출발하였다. 서울에서 자금 준비를 끝내고 소안도로 간 아마다는 ‘捧稅所’를 설치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일본에서 나온 어민들을 대상으로 징세를 실시하였다.

한편 부산영사관의 보고를 받은 도쿄 외무성에서는 아마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같은 해 11월에 시모노세키로 일시 귀국한 아마다는 아카마세키(赤間關)경찰에 체포되어 아마구치 시심재판소(山口始審裁判所)에 기소되었다.

1887년 12월, 콘도 마스키(近藤眞鋤) 임시대리공사가 외아문에 항의 조회를 보내 아마다 사건은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다. 당시 조일 간의 본격적인 첫 어업 규정인 「조일통어장정」이 아직 교섭중이었고 어세 규칙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외아문이 징세를 규정한 「수봉절목」을 아마다에게 발급했다라면 일본 측은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외아문은 「수봉절목」을 통한 공식적 관여를 부정하며 주사 朴準禹의 개인적인 배임 행위로 결론 짓고 박준우를 진주에 유배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였다. 결국 일본 측도 더 이상 이 일을 추궁하지 않았고 아마다의 기소도 증거 불충분으로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다 사건은 이미 한우근,¹⁾ 이근우²⁾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일본 외무성에 남겨진 부책 「朝鮮政府雇山田荒治該政府發給漁稅節目ヲ以テ我漁船ニ對シ徵稅一件」(이하 「山田綴」)³⁾을 충분히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책에는 사건과 관련하여 외무성이 재조선 공관들이나 국내 각소와 왕래한 문서들뿐만 아니라 아마다 본인,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 및 기타 증거 서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조선 측 각종 등록류나 미간행 사료들과 대조하면 아마다 사건의 복잡한 전개 과정을 밝힐 수가 있다.

지금까지 필자는 개항기 조선 외교를 ‘전략적’으로 구상, 전개된 것으로 재평가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다.⁴⁾ 「조일통어장정」 체결 교섭 중에 생긴 야

1) 한우근, 「開港後日本漁民의 침투」, 『東洋學』, 1971, 13쪽. 출어 일본 어선수 예비 조사가 가능되어 있지 않았다는 문맥에서 소개되어 있다.

2) 이근우, 「19세기 일본의 어업 침탈과 조선의 대응-통어장정 체결까지」, 『19세기 동북아 사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東北亞歷史財團, 2008은 본문 후술 「山田綴」에서 문서 목록과 문서 3점이 수록되어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韓國近代史資料集成五 韓日漁業關係』를 이용하여 사건 경과를 정리한 뒤 아마다사건을 ‘조선이 일본 어선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김옥균 암살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하지만 46점에 이르는 「山田綴」 문서 전체로 보면 부분적인 검토라 할 수 있어 더 자세한 논증의 여지는 남겨져 있다.

3) 戰前期외무성기록B-3-14-2-48, B12082787700. 이하 「山田綴」를 포함한 전전기외무성기록 인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온라인 공개 과일의 쪽 번호를 제시하겠다. (<https://www.jacar.go.jp/>)

마다사건도 이런 시각에서 보면 통어장정 교섭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일본 어업정책 구상 속에서 외아문이 계획,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별고에서 외아문의 야마다 고용 경위, 『수봉절목』 내용, 사건 발각 후의 조일 외교 교섭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야마다사건을 중심으로 한 외아문의 대일본 어업 정책을 논의한 바 있다.⁵⁾ 즉 외아문은 각지에서 조선인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던 출어 일본 어민들을 견제하면서 통어장정 교섭의 현실적인 이해를 가려내기 위하여 일본인을 고용하고 외아문 관리 하에 현지 파견하였다. 나아가 『수봉절목』을 작성, 발급하며 일본과 정면으로 교섭하면 실현하기 어려운 조선 측 권리를 오히려 일본 측과의 교섭 없이 성문화하여 조선의 실용적인 징세 체제 정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별고에서는 고용된 야마다 측 사정과 징세의 실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밝히면서 야마다사건을 통해 개항기 조일 관계의 실태와 외아문의 전략적 외교에 대하여 입체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외아문 고용인 야마다 아라지의 사정

1) 야마다 아라지의 임무와 계획

(1) 야마다 아라지란 누구인가

야마다 아라지는 1834년생으로 대마도 사스나(佐須奈) 마을 출신 평민이다.⁶⁾ 사스나는 한반도까지 거리가 고작 49.5 km 밖에 안 되는 곳으로 1672

4)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学出版会, 2016.

5) 酒井裕美, 『山田荒治事件(1887年)をめぐる朝鮮の戰略的外交 - 開港期の日朝漁業問題一考』, 『東洋史研究』 82-1, 2023.

6) 야마다 아라지는 자신의 경력과 외아문 고용 경위에 대하여 1887년 8월에 서울 일본영사관에서 취조를 받았을 때(『山田綴』, 203~204쪽), 1887년 12월에 시모노세키에서 체포되어 아카마세키 경찰에서 취조를 받았을 때(『山田綴』, 241~255쪽) 두 차례 진술했고 본문 기술은 두 진술을 종합한 것이다. 또 야마다의 진술에는 양력과 음력이 혼재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어느 쪽인지 판단하여 음

년 이후 조선을 왕래하는 배와 사람들을 검문하는 御船改番所가 설치된⁷⁾ 대마도에서도 특히 조선과 인연이 깊은 장소였다. 하지만 1872년에 부산 왜관이 외무성에게 ‘접수’ 되어 조선과의 왕래가 끊기자 사스나의 활기도 사라져 버렸다.

사스나 뿐만 아니라 대마도 전체가 ‘명치유신의 낙오자’가 되어가자⁸⁾ 야마다도 1873, 4년쯤 부인과 양아들 분사쿠(文作)와 함께 시모노세키로 적을 옮겼다. 생계는 해운(廻船)을 업으로 이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야마다가 처음으로 조선 땅을 밟은 것은 임오군란 때 파견된 군함 端舟⁹⁾ 舸子¹⁰⁾로 고용됐을 때라고 한다. 야마다는 귀국하여 시모노세키에 있었는데 1885년 9월쯤 소형 배에 장작을 싣고 다시 인천으로 건너갔다. 화물을 다 판 다음 그는 인천에서 80km 떨어져 있다는 산가이(サンガイ, 삼개=마포를 가리키는 뜻)를 왕래하는 회선을 운행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무직이었다고도 하고, 水夫稼 등으로 하루 벌이로 살았다고도 진술한 바가 있어 안정적인 경영은 못하였을 거라 추측된다.¹¹⁾

야마다가 처음으로 징세인 고용 이야기를 들은 것은 1885년 12월로 추정되지만 그것이 인천에서 이었는지 부산에서 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 후에도 야마다는 일본과 조선을 왕래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86년 3월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상용(商用)’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부산으로 간 것이 확인된다.¹²⁾ 야마다를 외이문에 중개한 김만석은 소통사 출신으로 일본어에 능숙

력일 경우에는 양력으로 환산하고 기술하였다.

- 7) 上県町誌編さん委員会, 『上県町誌』, 2004, 451쪽.
- 8) 宮本常一, 『対馬漁業史』(『宮本常一著作集28』), 未來社, 1983, 225쪽.
- 9) 1882년 7월 23일에 임오군란이 발발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군함 파견을 각의 결정했다. 8월9일에는 金剛이 인천에 입항하고 比叡, 淸輝도 따랐는데 이 군함들에는 각각 정원에 맞춘 端舟(보트)가 배비되었다. 藤間生大, 『壬午軍亂と近代東アジア世界の成立』, 春秋社, 1987, 156~157쪽; 生田淸範, 『軍人袖中必携』, 秀英舎, 1888, 96쪽.
- 10) 舸子は 배의 조수이고 예를 들어 근방의 萩藩에서는 藩船 운항의 성수기에는 ‘舸子役’을 영내에서 징발했었다고 한다. 木部和昭, 『平郡島における舸子役と漁業権』, 『やまぐち学の構築』7, 2011, 48쪽. 이때 시모노세키에서는 5, 60명이 고용되었다고 한다.
- 11) 일본에서 조선으로 초기에 도향한 사람들 중에는 선박을 소유하고 조종 기술을 가진 回漕 업자들이 많았다. 李東勳, 『在朝日本人社会の形成 植民地空間の変容と意識構造』, 2019, 明石書店, 79쪽.
- 12) 전전기외무성기록, 『海外旅券勘合簿 山口県之部 第一巻』3.8.5.5-11. 『海外旅券勘合簿』는 온라인 미공개 사료임.

한 인물이고 개항장에 출입하면서 외이문과 비공식적 및 일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데¹³⁾ 김만석에 의하면 야마다와의 친분은 야마다가 ‘우리나라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고 한다.¹⁴⁾

일개 재조일본인에 불과했던 야마다는 외이문에 고용되어 징세 사건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면서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¹⁵⁾ 하지만 야마다의 사건 후 소식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1888년 10월에 부산영사관이 실행한 출어어민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어민들 사이에 ‘무죄 방면’이 된 야마다가 다시 소안도로 와서 ‘捧稅所’를 설치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보여¹⁶⁾ 주변 해역에서 어업에 관여했을지도 모르지만 사료로 확인할 수 없다. 1908년 시점이긴 하지만 사스나 마을에서 실행된 민속조사기록에 야마다의 양아들인 분사쿠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¹⁷⁾ 사스나와의 인연은 끊기지 않았던 모양이지만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다.

(2) 외이문이 정한 야마다의 임무와 대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이문은 야마다를 이용하여 일본인 어민의 횡포를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고용시 외이문이 야마다에 발급한 「憑票」¹⁸⁾ 『收捧節目』¹⁹⁾에서 야마다의 권한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凭票」에 의하면 3년 계약으로 고용된 야마다의 임무는 ‘本署(外衙門)差定監官과 相議幫助’ 하는 것을 전제로 ‘三南沿海漁稅’를 ‘巡審’하는 일이다. 「수

13) 酒井裕美, 앞의 논문, 2023, 第二章第二項.

14) 『山田綴』, 254쪽.

15) 『鎮西日報』, 1888.2.16

16) 전진기의무성시록, 『朝鮮國慶尙全羅兩道に於ける我往漁者の情態報告一件』(以下「情態報告綴」) B-3-5-8-20, B11091820100. 494쪽.

17) 内野対琴, 『反故廻裏見』第十一卷, 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所蔵史料.

18) 『山田綴』, 196쪽.

19) 현재 확인 가능한 「수봉절목」은 ①부산영사관에서 작성한 야마다 보고의 사본이 高平小五郎, 青木周蔵 앞으로 송부된 것(『山田綴』, 196~197쪽), ②서울 일본 영사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본. 영인 자리가 묘사되어 있다.(『山田綴』, 291~292쪽) ③히라야마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부산 관리서에서 취조 할 때 압수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본(『山田綴』, 335~337쪽), ④1887년 12월 17일付 近藤에서 趙秉式 독관 앞으로 보내진 조회에 첨부된 것(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구한국의교문서 제1권 日案』(이하 『日案』), 1032付属文書), ⑤규장각 소장본(15284-3), 이상 다섯 가지다. 이하 본 논문에서의 인용은 ⑤에 따른다.

봉절목』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권한은 1년에 2번(6월과 12월) 일본 어선으로부터 징세를 실시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²⁰⁾ 봉세관을 보좌하여 어업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에 이른다.²¹⁾ 나아가 일본 어민 단속에 관해서는 밀무역,²²⁾ 생필품 현지 구입 문제,²³⁾ 무허가 조업,²⁴⁾ 조업 허가 구역 위반,²⁵⁾ 무허가 상륙,²⁶⁾ 포획 어류 판매²⁷⁾ 단속을 야마다가 관할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 영사의 재판관할권을 침범할 만한 권한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아문은 고용시 야마다에 보수조차 약속하지 않았다. 야마다의 진술에 의하면 ‘급여 혹은 수당 등’에 대해서는 현장을 실제로 보고 어선 수 조사를 마친 다음에 상의하겠다고 외아문 독관 김윤식이 말했다고 하는데²⁸⁾ 오히려 야마다는 활동에 필요한 범선 2척을 스스로 변통해야만 했고 그 운항에 관한 제반 비용도 조선 측에서는 일체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수봉절목』에 명기되어 있다.²⁹⁾ 그렇다면 야마다는 왜 외아문의 고용에 응한 것일까.

(3) 야마다의 계획

야마다가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외아문의 고용에 응한 것은 별도로 수입을 확보할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2, 3년 전 시모노세키에 있었던 야마다는 전라도 연해를 왕래하는 ‘漁船組合連’에게 어떤 위탁을 받았다. 그 내용은 조선 바다에서 조업할 때 어선의 생수, 식량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어획물 가공도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 도서 하나를 빌려 근거지를 만

20) 一 上納之事, 自六臘月, 從漁船數多少, 捧稅納上是齋.

21) 一 自外衙門定捧稅官, 行函書. 再雇用日人山田, 一切幫忙是齋.

22) 一 日本人, 不由海關, 與朝鮮人潛相賣買於海上船中者, 該貨以之入官, 居間與該主人, 列別懲罰是遣, 日本人指名, 即報外衙門是齋.

23) 一 朝鮮與日本漁船, 水火相求之時, 或有生弊有, 則朝鮮人自捧稅官嚴飭是遣. 日本人山田荒治定差人, 下送判別指飭是齋.

24) 一 日本漁船, 無捧稅所函書, 而潛漁者, 一併罰金逐送是齋.

25) 一 朝鮮人漁網設箭處, 日本漁人, 勿為犯漁是齋.

26) 一 日本漁人, 無事下陸, 生弊閭家者, 山田嚴飭論罰是齋.

27) 一 日本漁船所捉魚發賣時, 或朝鮮人居間生弊者, 自捧稅所一切禁斷是齋.

28) 『山田綴』, 203쪽.

29) 一 漁稅收捧時, 以山田風帆船二艘排用. 而該船諸般等費, 山田自當, 如有虧欠之費, 毋得責償是齋.

들든 물자 조달편을 준비해주든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어선조 합련’의 정체는 알 수 없으나 조일수호조규 체결 후 1877년쯤부터 남서 일본 어민의 조선 출어는 급증했었고³⁰⁾ 1887년에 부산영사관이 실행한 조사에서도 山口縣阿武郡, 豊浦郡을 중심으로 연간 220餘隻(4~6人乘)이 전라, 경상 연해로 출어한 것이 확인된다.³¹⁾ 출어 일본 어민 증대는 필수품 확보나 포획 해산물 가공, 판매를 둘러싼 문제 확대를 의미한다.³²⁾ 야마다는 어차피 스스로 준비해야 할 범선 2척으로 이 업무도 겸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³³⁾

하나 더 야마다의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주목되는 것은 야마다가 외아문에 고용된 후 어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일단 귀국해 나가사키에서 진행한 사전 준비다. 이 때 야마다는 나가사키에서 협력자들을 만나 투자를 권유했는데 그 중에 카와하라 이우에몬(川原伊右衛門)이 있었다. 카와하라는 나가사키의 유력한 도매상이었다.³⁴⁾ 야마다는 후술할 히다가 추자부로(日高忠三郎), 성명 미상 조선인 한명과 함께 카와하라를 찾아가 금50원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때 야마다가 강조한 것은 이번에 자신이 조선 정부의 의뢰로 일본 어선에 부과할 어업세 징세를 맡았기 때문에 야마다 소유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서는 어류든 기타 우피든 품목에 상관없이 앞으로 조선 수출입 관세가 면제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 야마다는 카와하라에게 조선 정부에서 받은 「빙표」 「수봉절목」 나아가 서울의 일본영사관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승인서를 제시했다고 한다.³⁵⁾ 물론 「빙표」에도 「수봉절목」에도 화물의 관세 면제를 보장할 내용은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야마다는 애초에 한문으로 되어있는 「빙표」 「수봉절목」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조선 국내 어디서든 장작, 물, 식량 등을 매매할 때 지장 없게 해줄 증명서’³⁶⁾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30) 吉田敬市, 『朝鮮水産開發史』, 朝水會, 1951, 159쪽.

31) 『情態報告綴』, 451쪽.

32) 吉田敬市, 앞의 책, 1951, 225쪽.

33) 『山田綴』, 203쪽.

34) 長崎貿易商同業組合, 『組合史』, 1933, 10쪽에 게재되어 있는 「荷受問屋盟約書」(1880년)에 이름이 확인된다.

35) 『山田綴』, 220쪽.

일본 어민들의 조선 출어와 마찬가지로 조일 무역도 개항후 규모가 확대되어 1876년부터 1881년까지 수출이 17배, 수입은 24배 증가했다.³⁷⁾ 특히 1880년대 전반까지 나가사키에는 조선산 건어물(俵物)이 활발하게 거래되었는데³⁸⁾ 1883년 이후 조선 해관에서 관세 징수가 시작되자 무역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관세 면제라는 야마다의 제안에는 적지 않은 매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카와하라는 2, 3일 답장을 보류하다 결국은 이 제안을 거절했는데 카와하라 말고도 야마다 주변에는 여러 상인들이 등장한다. 부산의 오이케 추스케(大池忠助),³⁹⁾ 서울 토다(戸田) 상점,⁴⁰⁾ 히로이케 규노스케(広池久之助)⁴¹⁾다. 각각 야마다의 협력자에게 자금을 지원했는데 비슷한 권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외아문이 고용한 야마다는 외아문이 정한 임무와는 별개로 조선 출어 일본 어민을 상대로 한 상업 거래와 더불어 이미 조선 무역을 하고 있는 나가사키 상인들을 중개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하였던 것이다. 조선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을 이용하면서 상황 변화로 생긴 상거래의 ‘틈’을 노리는 야마다의 처세가 주목되는데 이것은 그가 대마도 출신이라는 배경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였다.

2) 야마다 아라지와 ‘대마도 커넥션’

야마다사건 관계자들을 정리해 보면 (<표 1>) 앞에서 살펴본 야마다의 계획이 대마도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한 나가사키-대마도-부산을 잇는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거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6) 『山田綴』, 243쪽.

37) 姜徳相, 『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 『歴史学研究』 6号, 1962, 3쪽

38) 石川亮太,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開港・華商・帝国』, 名古屋大学出版会, 2016, 69쪽.

39) 『山田綴』, 221쪽.

40) 『山田綴』, 221쪽.

41) 『山田綴』, 326쪽.

〈표 1〉 야마다사건 관련 인물들

이름	나이 (1887년 시점)	출산지	거주지	조선의 거처	확인된 부산 도항	직업
山田荒治 야마다 아라지	54	対馬 佐須奈村	赤間関今浦町		1886.3 「商用」	回漕業 / 無職
中村藤吉 나카무라 토키치	38	対馬 巖原 大手橋	長崎本籠町 商人・岩崎静八	1886~ 釜山港에 거류	1877.10 「商用」	手代
村上栄次郎 무라카미 에지로		対馬 巖原 大手橋	対馬 巖原 大手橋			
西俊助 니시 슌스케	62		長崎 西彼杵郡 深堀町	居留地幸町 三丁目十六番地 福山金作方止宿	1887.7 「商用」	
平山与右衛門 히라야마 요우에몬	45	対馬 巖原 国分町	対馬 巖原 国分町	釜山南浜町 二番地神崎方	1878.10 「商用」	仲買
日高忠三郎 (忠吉) 히다가 추자부로 (츠키치)	38		長崎 本下町		1877.9 「商用」 1878.3 「商用」 1878.6	商人
樋口清助 히구치 세이스케	56	対馬	長崎 今下町	釜山港本町 田中平太郎	1887.7 「商用」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마다 말고 소안도 주변 해역에서 실제로 징세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 나카무라 토키치(中村藤吉), 히라야마 요우에몬(平山与右衛門), 무라카미 에지로(村上栄次郎)는 모두 대마도 출신이다. 사건 발각 후 야마다와 히라야마는 야마구치 시심재판소에 기소되었는데 그 때 ‘공범’으로 대마도 이즈하라(巖原) 재판 지청에서 3명(氏名不明)이 호송된 것도 확인이 된다.⁴²⁾ 나아가 앞에서 본 카와하라 방문 시 야마다를 동행한 히다가는 당시 나가사키 거주자였고 대마도 출신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나카무라를

야마다에게 소개시킨 인물이다.⁴³⁾ 또한 히다키는 히구치 세이스케(樋口清助) 라는 나가사키 상인과 친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히구치도 대마도 사람이다. 한편 당초에 징세를 위한 선박을 제공하여 야마다와 같이 활동할 예정이었다가 중간에 변심하여 부산영사관에 야마다를 신고한 인물로 니시 슌스케(西俊助)가 있다. 니시는 나가사키 士族이고 대마도와의 관련은 불명확하지만⁴⁴⁾ 앞에 나온 히구치와 친했다. 니시를 야마다에 소개한 인물도 히구치다.⁴⁵⁾ 히구치와 니시는 같이 나가사키에서 부산으로 건너가⁴⁶⁾ 선술한 오이케(대마도 출신)에게서 자금을 조달했다.

대마도가 ‘명치유신의 낙오자’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지만 당시 대마도에서는 ‘몰락지는 거의 예외 없이 대마도를 떠난다’⁴⁷⁾는 상황이었다. 이즈하라 중심의 도매 제도가 붕괴되고 외부자 거주가 허용되는 등 큰 사회 변동이 생겼는데도 한편으로는 마을마다 ‘本戸’라 불리는 토착 무사, 백성들의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이 本戸에게만 어업권과 경작지가 인정되는데는 종래 생활 형식⁴⁸⁾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藩政下에서 특권을 가지고 영업 활동을 전개해 왔었던 상인들(특히 廻船業者들)이 廢藩置縣 이후 경영 위기를 맞았다.⁴⁹⁾ 그들이 신천지를 찾으려 했던 곳 중 하나가 부산이었고⁵⁰⁾ 개항후 부산이 ‘대마도 이즈하라의 支町이라 할 수 있다’⁵¹⁾는 정도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야마다사건 관계자들 중에서도 中村藤吉, 平山与右衛門, 日高忠三郎에 대해서는 1877년, 78년 개항 초기부터 부산으

42) 『山田綴』, 348쪽.

43) 『山田綴』, 220쪽.

44) 대마도는 1872년 8월 이후 나가사키현 관할로 들어갔다. 그래서 후술의 주52처럼 사료에 따라서는 대마도가 ‘나가사키’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다.

45) 『山田綴』, 221쪽.

46) 전전기외무성기록, 『海外旅券勘合簿 長崎県之部』 3.8.5.5-1

47) 宮本常一, 앞의 책, 1983, 225쪽.

48) 九学会連合編, 『漁民と対馬』, 関書院, 1952, 105·111쪽.

49) 木村健二, 『朝鮮進出日本人の営業ネットワーク - 亀谷愛介商店を事例として』(杉山伸也, 린다·그로브編, 『近代アジアの流通ネットワーク』, 創文社, 1999, 第2章), 47쪽.

50) 木村健二, 『近代の長崎・対馬と朝鮮』, 『歴史評論』 669, 2006, 46쪽.

51) 『朝野新聞』, 1878년 12월 10일 『朝鮮通信』, 山田昭次, 『明治前期の日朝貿易 - その日本側の担い手と構造について』(家永三郎教授東京教育大学退官記念論集刊行委員会編, 『近代日本の国家と思想』, 三省堂, 1979)에서 재인용.

로 도향한 기록이 확인돼⁵²⁾ 그들이 부산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대마도 출신자들은 도향이나 취업 단계에서 자연적인 연계를 갖고 있었고 그 연계는 상업상의 연락이나 이해 조정의 기반이 되었다. 그들은 「協約社」라는 동향 단체를 조직하였는데⁵³⁾ 1882년 3월에 또 「尅州大親睦會(尅州同胞會)」를 조직하였다. 당시 부산에서 발행되었던 『釜山新報』에 의하면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부산항 거류 인민은 약 2천여명인데 그 과반수는 대마도인이다. 그 중에는 관원도 있고, 서생도 있고, 또한 무역상도 있고, 중매상도 있으니 자연스럽게 다른 거류인들과 달리 동향 형제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만사에 단결 기질이 있다는 점으로 상탄할 만한 일이다. 이번에 淺山某가 발기인이 되어 尅州大親睦會(尅州同胞會라고도 한다)를 열어 귀천빈부 차별 없이 서로서로 일치 협력 정신을 가지고 장래 목적을 위하여 큰 계획을 하려고 이번달 제1, 제2 일요일에 修濟學校에서 衆議한다고 한다.⁵⁴⁾

회장에 외무성 통역관이었던 아시아마 켄쥬(淺山顯三)를 세우고⁵⁵⁾ 부회장으로는 나카라이 센타로(半井泉太郎)도 등장한다. ‘귀천빈부 차별 없이’ 회원수 470명에 이르렀다는 이 단체에 아마다사건 관계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 대마도 출신자들의 커뮤니티가 존재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이것을 ‘대마도 커넥션’이라 부른다.⁵⁶⁾

52) 전전기의무성기록, 『海外旅券勸合簿 長崎県之部 第二卷』 3.8.5.5-1

53) 木村健二, 앞의 논문, 1999, 48쪽.

54) 『朝鮮新報』(釜山港商法會議所發行) 1882.3.15., 5면.

55) 후일답이지만 淺山는 1899년 군산 개항시 군산영사관으로 부임한 인물로 ‘島人根性是 끝까지 없어질 줄 모르고 동향인을 감싸주기에는 거리낌이 하나도 없다’는 논평이 남아 있다. 그 밑에서는 ‘대마도인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保高正記·村松祐之, 『群山開港史』, 1925, 63쪽.

56) 木村健二, 앞의 논문, 1999, 48쪽.

하지만 한편으로 이 ‘대마도 커넥션’은 상품 매입, 판매 루트나 자금 루트에 관해서는 별로 강력하지 못했다는 점도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다. 개항 당초에는 부산의 일본인 상업 거래 구조 자체가 대마도인들의 중개를 받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마도인들의 존재감은 상당했지만 서서히 유력 무역 상인들이 조선 무역에 참여하고 직접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서 그런 상업 구조에는 변화가 생겼다. 대마도에는 현지 생산 상품이 없고, 시장도 좁은데다 자금력도 약하다는 한계가 있어 그런 배경을 가진 대마도 출신 소상공인들은 부산상법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유력 무역 상인들과 대립을 하게 되었다.⁵⁷⁾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한 사건으로 1881년 8월 18일에 발발한 구포사건⁵⁸⁾이 있다. 이 사건은 부산의 대마도 출신 쌀 도매상 수에나가 슈이치(末永秀一)를 비롯한 4명이 부산 거류지에서 이동이 허가된 구역(間行里程)을 넘어 구포의 조선인 쌀 상인 金致玉 집으로 쳐들어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폭행한 것이 발단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김치옥이 대마도 상인들을 배제하고 일부 일본인 상인들에게만 쌀을 수송한 것에 대한 대마도인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부산상법회의소와 대마도인들의 대립은 첨예화 되었다.⁵⁹⁾

야마다와 함께 현지에서 징세를 실행한 무라카미 에이지로(村上栄次郎)가 이 구포사건에 연루돼 징역 70일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상징적이다.⁶⁰⁾ 무라카미는 구포 습격 후 총대로서 동래부에서 직접 담관을 지으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무라카미가 부산에서의 입지가 약해지는 것에 불만이 많은 한 대마도인이었던 것처럼, 야마다사건 관련자들 중에 소위 유명인사는 없다.⁶¹⁾ 외무

57) 農商務省商務局, 『商況年報 明治十六年度編』; 山田昭次, 앞의 논문, 1979에서 재인용.

58) 구포사건에 대해서는 朴漢珉, 『開港初期朝日間交易様相과 龜浦事件』, 『韓日關係史研究』 第72集, 2021을 참조.

59) 박한민, 앞의 논문, 2021, 207~208쪽.

60) 『朝日新聞』 1881년 9월 11일, 11월 29일. 무라카미는 부산항 감옥 협소를 이유로 1881년 11월 대마도 嚴原警察署로 호송되었다는데 1887년 여름에 야마다사건으로 조선에 갈 때 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1891년에는 대마도 淺蕨에서 초등학교 전신인 사설 학습지도소를 설립했다고 한다. 嚴原町教育委員會, 『嚴原町教育史』, 1972, 300쪽.

61) ‘釜山三大成功者’라 불리던 大池忠助는 예외다.

성의 在外邦人商人調査나⁶²⁾ 후세에 나온 『在韓實業家名鑑』⁶³⁾에서 그들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즉 오랫동안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대마도 출신자들이 그것을 무기로 활로를 찾으려는 상황이 개항기 부산에 있었고, 외아문이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별고에서 외아문이 김만석을 포함한 소통사 출신 인물들을 이용했었던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⁶⁴⁾ 전 소통사들이 접촉한 것은 이러한 대마도 출신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도태되어 버린 그들의 존재는 재조일본인사 연구에서 가끔 언급되는 것 이상의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하지만 해당 시기 외아문의 대일본 정책은 그들의 존재를 하나의 배경으로 두고 전개되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소안도 주변 해역 징세 실태

1) 어민들의 증인

야마다 일행의 징세는 1887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서 실행되었는데 외무성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할 수 없었다. 당시 조선 출어 어민에 대한 관리는 일본 각 지방에서도⁶⁵⁾ 부산에서도⁶⁶⁾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62) 전전기외무성기록, 『本邦人外国ニ於テ商店ヲ開キ營業ヲスル者ノ氏名住所營業ノ種類等取調一件』, 3-3-7-13. B10074441000. 1887년도 조사는 14~19쪽, 1889년도 조사는 78~82쪽.

63) 日韓商業興信所, 『在韓實業家名鑑』, 1909.

64) 酒井裕美, 앞의 논문, 2023, 第二章第二項.

65) 幕藩체제하에서 각 번이 각자 방식대로 실시하고 있었던 어민들 관리는 廢藩置縣 이후 붕괴되었고 무질서 상태가 되었다. 소안도 주변으로 많은 어선이 출어한 豊浦郡으로 예를 들면 長門府中藩政시절은 他藩(주로 対馬藩)영해 출어 어민들에게 관세(運上)을 부과하고 往來手形을 발급했다. 이 방식이 사라진 다음에 山口県이 1873년에 ‘漁業採藻稅’ ‘船稅’ 징수와 함께 어민들에게 감찰을 발급하는 방식을 도입 했지만 제도적으로 확립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조업 구역을 신고하게 된 것은 1882년 5월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조업 구역에 조선 연해는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 農林水産局, 『山口県豊浦郡水産史』, 農業と水産社, 1935, 11쪽.

66) 부산에서는 1883년 12월에 『釜山港碇泊漁船取締規則』가 공포되어 조선 연해로 출어할 어민들에게 부산영사관 신고가 의무화 되었다(釜山府, 『釜山府史原稿6』, 360쪽). 하지만 어민들은 본격지에서 어장으로 직접 왕래했기 때문에 이 의무화도 제대로 기능하지는 못했고 부산영사관에서는

때문이다. 외무성은 부산영사관, 일본 국내 각 지방에 조사 명령을 내렸지만 현지에서도 접촉 가능했던 어민들을 취조하는 일 말고 딱히 방법이 없었다. 외무성으로 보고된 어민들 증언은 <표 2>에 보이는 5건이다. 이 내용들은 단편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지만 아마다의 징세 실태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다. 本節에서는 비교적 상세한 증언이 남겨져 있는 ②의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표 2> 일본 외무성에 보고된 피징세 어민들 상황

	발생일	이름	본거지	장소	징세인	세금 명	세금액	「山田綴」출전
①	1887.5	古谷彌五郎 前田益吉	山口県 大嶋郡 沖家宝島	三島	朝鮮人官吏 3名(内1名日本語) 金乃信	濱稅	1원 (一年分)	271-274
②-1	1887.8.8	三浦長次郎 別府龜吉 佐伯与右衛門	山口県 阿武郡 鶴江村	所安島	山田 朝鮮人通訳 日本人水夫様 8人			307-311
②-2	1887.9.29. ~	三浦長次郎 別府龜吉 佐伯与右衛門	同	楸子島	日本人5人 对馬浅茅湾에서 既見. 50대 일본인 漁師体日本人6,7人		4인승까지 한달 2兩50錢, 5-9인승 2兩50錢	307-311
③	1887.10.8	橋本源八	山口県 豊浦郡 吉母浦	楸子島	山田	—	3兩75錢 (7半月分, 8月中分)	235-240
④	1887.10.13	本岡伝三郎 (総代) 林安太郎 (船長) 白銀平次郎 松本長十郎 松本太郎松 八木仲次郎 戎崎勘次郎	山口県 大嶋郡 沖家宝島	楸子島? (知遠島)	山田	上陸 逃亡 罰金	2兩50錢 (6人乘8月分) 1兩50錢 (4人乘10月分)	222 224-227
⑤	1887.10.20	亀田三郎(船主) 大濱宗吉(船頭)	山口県 豊浦郡 吉母浦	所安島	所安島捧稅官	魚稅	1兩50錢	235-237

어민들의 실태 파악에 난처했었다. 『情態報告綴』, 485~486쪽.

1887년 8월 8일 쯤 山口県阿武郡鶴江村의 어민 벳부 카메마츠(別府龜松)와 사에키 요우에몬(佐伯与右衛門)은 어선 2척으로 소안도 앞바다에 도착하였다. 마흔살 전후로 보이는 아마다가 양복 차림으로 조선 통변 한명(김만식으로 추정됨), 수부로 보이는 8명과 함께 50石 크기의 일본 배로 다가와 상륙을 요구하였다. 벳부가 상륙을 거부하자 아마다는 일본 배가 어업을 하려면 조선 정부에서 감찰을 받아 세금을 상납할 필요가 있으니 지불 없이 무면허 조업을 한다면 ‘부적절(不都合)’이라고 하였다. 할 수 없이 벳부 일행은 조업을 포기하고 8월 23일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후 벳부 일행은 다시 어선 3척으로 출발해 9월29일쯤 추자도에 도착했다. 항구에 정박하자 어부 차림의 일본인 5명이 조선 돛단배를 타고 와서 지방관 명령이라면서 상륙을 요구하였다. 밤이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 달라고 사에키가 호소했더니 ‘증거’ 제출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벳부와 사에키는 ‘旧藩’에서 발급된 어업감찰을, 미우라 초지로(三浦長次郎)는 ‘处州船越通船税受取証’을 제출하였다(이들 ‘증거’들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다음날 아침 벳부가 혼자 상륙했는데 대마도 아소만(淺茅灣)에서 본 적이 있는 50대 일본인(平山与右衛門으로 추정된다)이 평복으로 어부 차림 일본인 6, 7명과 같이 조선식 가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연해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에 납세를 한 다음에 감찰을 받아야 한다며 미리 어업 기한을 정하고 세금(1척당 매월 4인승까지 1원50전, 5~9인승 2원50전)을 상납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벳부 일행은 아직 한번도 연해에서 조업을 못했다는 점, 현금을 안 가져와서 지불이 불가능한 점을 호소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일단 감찰을 줄 테니 회항할 때 세금을 내라고 했다. 게다가 이 감찰이 있으면 제주도에서도 조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벳부가 회항이 내년이 될 경우 미리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두기는 곤란하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이것에 대한 수취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또 벳부 일행이 소안도 앞바다에서 오이타현 사가세키(大分県佐賀関) 소속 어선 18척을 만났을 때 이 선단의 ‘大船頭’ ‘타로키치(太郎吉)’에게 상황을 들었다. 그에 의하면 아마다에게 1척당 매월 2원50전의 세금을 요구받았

지만 교섭한 끝에 1원50원으로 깎아 감찰을 받았다고 한다. 山口県阿武郡鶴江村 沖船頭 츠루키피(鶴吉)한테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도 아마다라는 사람에게 ‘세금 내금’으로 1원을 상납했다고 한다.

이상 증언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징세를 담당한 아마다, 히라이미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수부’ ‘어부’ 여럿을 데리고 있었고 동시에 조선인 통역의 동행도 확인되는 점, 둘째, 아마다 일행은 감찰 발행 조건으로 세금을 월액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 액수는 외아문에서 받은 「수봉절목」 금액과 동일하다는 점,⁶⁷⁾ 셋째, 감찰 발행에 있어서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세금 후납을 인정하고, 제주 조업까지 허가하는 등⁶⁸⁾ 현지 재량으로 보이는 판단을 자주 내리고 있다는 점, 넷째, 외무성에 올려진 증언들 말고도 일본 어민들이 징세를 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추측되는 점, 이상 네 가지다.

이러한 점들을 전제로 <표 2>의 기타 케이스를 종합하여 아마다사건과 외아문의 관계를 고찰하려고 할 때 중요한 논점은 조선인의 역할과 봉세관들의 현지 재량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 논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선인의 역할

벳부 일행의 경우에 아마다가 조선인 통역과 함께였다는 점은 이미 확인됐다. 이 외에도 징세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 조선인의 관여가 확인된다.

①에 대해서는 조선인 관리가 징세인이었다는 증언이 있고 문서 발행인도 ‘金乃信’으로 되어 있다.⁶⁹⁾ ④의 경우 ‘징세관’이 탑승한 배(조선 주민 사용

67) 「수봉절목」에 적혀있는 세금 액수는 10인승 이상 일본은화 5원, 5-9인승 2원 50전, 4명승 이하 1원50전이다. 이 액수는 「조일통어장정」 체결 교섭 과정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酒井裕美, 앞의 논문, 2023, 第三章 第二項.

68) 제주도 주변 해역의 일본 어민 조업은 1884년 9월에서 잠정 중지가 되어 이 조치는 1891년 12월까지 계속되었다. 이것은 외아문의 전략적 외교의 성과였다는 점에서도 이런 대응에 외아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酒井裕美, 「日朝兩國通漁規則(1889年)締結交渉の再検討 - 濟州通漁問題をめぐる朝鮮外交の展開を中心に」, 『上智史學』 第65号, 2020.

69) 「証書」 날짜는 ‘光緒十四年丁亥四月二十五日’이다. 1887년 6월 6일에 해당되는데 앞서 언급한 듯이 이 때 아마다는 나가사키에 있었다. 후루야도 징세인에 일본인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즉 이 징세에 아마다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징세 주체는 어디서 나온

小船이라고 한다)에는 일본인 6, 7명과 조선인 2, 3명이 탔다고 하고, 발행된 어업 감찰에는 ‘야마다’와 나란히 ‘김’이란 이름이 확인된다. 야마다가 시모노세키로 돌아갔을 때도 김만석과 동행한 것으로 보여⁷⁰⁾ 야마다의 활동 대부분은 김만석과 같이 한 것으로 봐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한편 ③의 경우 발행된 문서에 이름이 확인 되는 것은 ‘山田荒治’와 ‘平山与右衛門’다. 하지만 야마다의 진술에 의하면 이 때 야마다는 병 때문에 추자도에 없었고 이 케이스는 ‘安先達’의 담당이었다고 한다.⁷¹⁾ ‘안선달’은 ⑤의 경우에 있어서도 야마다에게 지시를 내린 인물로 거론되어 있다. 또한 히라야마의 진술에 의하면 히라야마가 추자도에서 했던 활동은 조선인 ‘안선달’과 함께 한 것이었다고 한다.⁷²⁾ 그렇다면 ②의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도 히라야마와 함께 조선인 ‘안선달’이 관여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크다. ‘안선달’은 정체불명이지만⁷³⁾ 야마다는 ‘안선달’에 대하여 김만석과 같이 ‘통리아문이 쓰는 사람’이고 ‘자신의 상사 같은 사람’이라고 진술했다. 나아가 ‘안선달’은 야마다의 행동에 대해 ‘조선국에 고용되었다’는 입장을 늘 염두에 두도록 주의를 주었다고 하고 야마다는 이거에 ‘항상 심통’ 했었다는 불만을 표현했다.⁷⁴⁾ 야마다의 역할이 외아문 파견 관원의 보좌에 있다는 것은 고용계약에 이미 명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징세 현장에서도 조선인이 지도적인 역

누구였을까. 따로 단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証書』의 발행인이 ‘金乃信’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측에서 문의를 받은 외아문이 바로 부산감리서 앞으로 ‘日語通詞’ ‘金乃信’의 행방을 알아보라는 지령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釜山港關草 一』 戊子二月十一日) 즉 해당 해역에서는 야마다가 가기 전부터 일본 어민에 대한 ‘징세’가 실시되고 있었고 그 담당자가 ‘일어통사’임을 외아문이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야마다 증언에 의하면 야마다 이외에도 통리아문에서 파견된 5, 6명이 징세활동을 벌이고 있었다고도 한다. 『山田綴』, 245쪽.

70) 『防長新聞』 明治二十年十一月三十日.

71) 『山田綴』, 251쪽.

72) 『山田綴』, 329쪽. 平山는 ‘安先達’ 이외에도 조선인 동행자로 ‘鄭書房’라는 사람을 들었다.

73) ‘先達’이란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도 아직 관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명사다. 흥미롭게도 민건호(수신사 수원을 꺾어서 부산감리서에서 해관 관련 업무를 1885년까지 담당한 후 외아문 주사가 된 인물)의 일기 『海隱日記』에는 부산감리서 기사 중에 ‘안선달’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安先達嗣壽’라고도 표기되어 있어 즉 ‘안경수’를 가리킨다. 안경수도 소통사 출신이지만 그는 당시 수신사 수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어 있었다. 귀국길에 해당 해역을 들른 가능성도 있지만 추자도의 ‘안선달’이 안경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부산근대역사관 편, 『東行日錄 海隱日記』, 2006, 144·148·388쪽.

74) 『山田綴』, 252쪽.

할을 담당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피징세 어민들이 수여된 문서들

	발행날짜	수취인	발행인	문서종류	문체	印章	山田綴출전
①	光緒十四年 丁亥 四月二十五日	古谷伍助	捧稅○○○○ 金乃信		漢文		274
②A	光緒十二年 丁亥 六月 日	別府龜松	大朝鮮国 統理衙門 捧稅官 山田荒治	漁業鑑札	吏読포함		310
②B	光緒十二年 丁亥 六月 日	三浦長十郎	大朝鮮国統理衙門捧稅官山田荒治	漁業鑑札	吏読포함	○	310
②C	光緒十二年 九月八日	三浦長十郎 別府龜吉 佐伯与右衛門	大朝鮮国統理衙門捧稅官山田荒治	記	일본어 가나 문자	○	311
③A	明治二十年 旧八月廿二日 光緒十三年 八月廿二日	橋本源八	楸子島出張所 山田荒治		候文/ 일본어 가나문자	○	238
③B	明治廿年 八月廿二日	橋本源八	楸子出張所	記	候文	○	240
③C		橋本源八	捧稅官 平山	記	일본어 가나문자	○	239
③D	旧八月廿二日	釜山港 大草様	山田荒治 平山与右衛門		일본어 가나문자		334
④A	光緒十二年 十月十三日	林安太郎	大朝鮮国統理衙門捧稅官 金 山田	漁業鑑札	吏読포함	○	275
④B	光緒十三年 丁亥 八月十七日	林安太郎	統理衙門捧稅官 山田荒治	漁業鑑札	漢文	○	227
④C	明治二十年 十月十三日	林安太郎	楸子島捧稅官 山田荒治	請取証	일본어 가나문자		276
④D	明治二十年 旧九月十五日	林安太郎	大朝鮮国外理衙門捧稅官出張所 山田荒治	渡鮮聞届書	일본어 가나문자	○	277
⑤	明治廿年 旧九月四日	龜田三郎	所安島 捧稅官	記	일본어 가나문자	○	237

이러한 상황은 문서 발행 주체로서도 알아볼 수 있다. <표 3>은 어민들이 징세자에게 받은 문서로 현재 확인 가능한 13건을 정리한 것이다. 문체에 주목하면 한문, 이두, 일본 가나문자, 候文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문서가 작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서 발행자로는 아마다 혹은 히라이마 이름이 적혀있지만 일본의 일반적인 식자 상황,⁷⁵⁾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외어문에서 받은 문서 내용조차 충분히 이해 못했던 아마다의 식자 능력을 고려할 때⁷⁶⁾ 아마다를 비롯한 일본인들이⁷⁷⁾ 이런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어 문서도 어려운데 이두 사용 문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소통사 출신으로 보이는 김만석은 가능했을 것이고 ‘선달’로 아마다 기타 일본인들과 소통하고 있었던 ‘안선달’도 그랬을 것이다. 문서 발행은 징세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 수속을 조선인이 담당했었다는 것은 징세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일본인들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준다.

그렇다면 아마다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 첫 번째 역할은 일본 어민들에 대한 폭력적 위압이다. 당시 조선 출어 일본 어민들은 예외 없이 칼이나 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런 무기들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특히 도서에 출입할 때마다 총을 쏘고 해상에서 일본 배끼리 만나기만 해도 총을 쏘았다고 한다.⁷⁸⁾ 조선 정부에 있어서도 일본 어민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것이 아마다를 고용할 당시부터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⁷⁹⁾ 이러한 상황에서 징세인 측도 어민들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

75) 명치 초기 일본의 식자 상황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무엇을 가지고 식자로 하느냐는 정의의 부재, 지역 차이등 때문에 실제 파악은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기록이 남아 있는 1881년 長野県北安曇郡常盤村 883명에 대한 식자 조사를 봐도 姓名等自署可能層은 55.6%에 이르지만 실용적 식자층은 9.1%에 불과하였다. 한문으로의 문서 작성은 이 조사에서 1.7%뿐이었던 ‘공포달 및 신문 논설이 해독 가능한 자’보다도 높은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八鍬友広, 『近世社会と識字』, 『教育学研究』 第70卷 第4号, 2003.

76) 1887년 1월, 아마다에게 원서 제출을 권한 김만석은 ‘書役’를 데리고 왔었고 그가 원서를 작성했는데 아마다는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山田綴』, 203쪽.

77) 平山도 문서를 읽을 줄 알았는지 의문스럽다. 진술서에 무인을 찍을 때 ‘낭독’으로 내용을 파악시킨 상황이 사료에 확인된다. 『山田綴』, 328쪽.

78) 『情態報告一件』, 491쪽.

79) 酒井裕美, 앞의 논문, 2023, 第二章 第一項.

다. ①에서는 세금을 안 내면 때린다고 하였고, ④에서는 즉시 납세하지 않을 경우에 어선을 둘러싸고 폭행을 가한다고 했다. 그것을 위한 기구도 비치되어 있어 어민들은 총살 위협을 받았다는 증언이 보인다. 징세인이 일본인으로 보이는 집단과 함께 행동했다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역할은 어민들과의 교섭이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항구에 기항할 배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기동력 있는 어선을 해상에서 발견하고 더구나 구속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히라이마에 의하면 어선들은 접촉조차 힘들었다고 하고 구속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만석의 증언에 의하면 어민들의 도망은 다반사였다.⁸⁰⁾ 또한 아마다 측 입장으로도 공식적으로는 징세 실행이 조일간 어세규정 성립 후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모자라다는 측면도 있었다.⁸¹⁾ 결과적으로 실제 징세는 거의 어민들과의 교섭을 통해 실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에 대해서는 어민들은 ‘濱稅’로 설명 받았다고 하는데 영수증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船食稅’로 되어있다. 직접 어업세로서의 징세가 어려워 명칭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④에서는 당초 요구를 거부해 도망간 어민들이 식량 조달을 위해 상륙했을 때를 노리고 구속해 ‘어세’ 말고 도망한 ‘벌금’으로 수금을 실현했다고 한다.⁸²⁾(하지만 이 ‘벌금’ 대가로 ‘감찰’을 발행했다.) ⑤에서는 ‘어세’로 수금되어 있긴 하지만 그 실패는 어선이 쌀을 적재했던 사실이 조선 측에 들켜 배가 압수된 상황에서 아마다의 중개로 배를 되찾기 위해 조선 측으로 전달한 돈이었다고 한다. 표에 정리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히라이마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들이 거류지 밖에 가옥을 건설했는데(소안도 7군데, 추자도 3군데) 여기서 ‘허가 값’(『斷り金』)으로 한 군데 마다

80) 『山田綴』, 358쪽. 진술에 의하면 아마다의 귀국이 도망친 佐賀閩 선박을 쫓아온 결과였던 것도 상기된다.

81) 아마다 고용증인 『憑票』에 ‘現漁稅雖未開行, 規模溟略定’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다도 외아문에서 세금 규정이 성립되기 전에는 징수를 하면 안된다는 명이 있었기에 ‘세금’은 징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山田綴』, 204·243쪽) 하지만 명목상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마다는 『憑票』와 같이 수세 세칙인 『수봉절목』을 외아문에서 받았고 김만석은 아마다의 임무가 징세였음을 단언했다.(『山田綴』, 355쪽.)

82) 『山田綴』, 357쪽.

3원 50전을 ‘세금’으로 징세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⁸³⁾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협상 없이는 불가능 했고 그 협상에서 앞장 선 건 어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마다를 비롯한 일본인들이었다. 하지만 아마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런 협상들도 조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⁸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발행 문서에 보이는 현지 재량

세목 변경에도 보이는 것처럼 실제 징세 현장에서 아마다 일행은 상당한 현지 재량을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다 고용, 「수봉절목」 부여, 현지 파견은 외아문의 정책이라는 전제 하에 이런 징세 현장에서의 현지 재량 실태를 확인하는 일, 즉 외아문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일은 아마다사건에 대한 외아문의 관여 실태를 검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조선인에 의한 문서 발행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 있지만 여기서 는 문서 내용을 더 자세하게 검토하면서 현지 재량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한다.

(1) 형식

〈표 3〉에 정리한 문서들은 사실은 공문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식적 하자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다.

첫째, 발행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 소안도 주변에서 징세가 이루어진 것은 光緒十三年=丁亥=明治二十年=1887년인데 ‘光緒十四年丁亥’(①), ‘光緒十二年丁亥’(②AB), ‘光緒十二年’(②C) 라는 틀린 표기들이 보인다. 또 ②AB의 경우 앞에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어업 감찰이 발행 된 것은 뱃부 일행이 두 번째로 도항했을 때로, 음력 8월이 되는데 첫 번째 도항 시기인 6월로 거슬러 올라가 기록되어 있다.

둘째, 발행 주체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83) 『山田綴』, 363쪽.

84) 『山田綴』, 252쪽.

‘大朝鮮國統理衙門捧稅官山田荒治’이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 표기가 확인된다. ‘통리아문’을 ‘外理衙門’이라 표기한 것도 있고 平山与右衛門이 봉세관을 자칭하는 문서도 있다 보니 형식을 갖춘 문서 작성이 고려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셋째, 인장 문제를 들 수 있다. 김만석 증언에 의하면 ‘봉세관 출장소’에는 고종으로부터 하사된 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山田綴』에 정리된 사료들은 원본이 아니라 외무성에서 필사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장은 ‘〇印’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④D의 경우에는 네모 인장의 영인이 묘사되어 있어 ‘朝鮮國〇〇出張員山田之章’이라는 문구가 판독 가능하다. 그런데 이 인장에 대하여 김만석은 정부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어민들에게 납세 증명서를 발행할 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자신이 야마다를 시켜서 만들게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⁸⁵⁾ 즉 발행 문서들에 찍혀있는 인장들은 현지에서 사적으로 만든 인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서들의 형식적인 하지는 이 문서들이 외아문의 관리나 지시하에 발행된 것이 아니라 현지 재량으로 즉석에서 발행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이러한 현지 재량 흔적은 발행 문서 내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②C는 앞에 언급한 듯 어업 감찰 발행 조건인 어세 납입을 미루는 과정에서 발행한 ‘증거’ 문서 수취증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문은 새로 쓰기 임. 이하 같음)

85) 『山田綴』, 365쪽.

記
 漁業鑑札二枚
 外ニ対馬國下県郡島山村定税受取証一枚ツツ
 右正ニ預置候也
 光緒十二年九月八日
 大朝鮮国統理衙門
 捧税官山田荒治 ○
 船長 三浦長次郎殿
 別府龜吉殿
 佐伯与右衛門殿

어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때 말긴 문서는 旧藩 발급 어업 감찰과 ‘対州船越通船税受取証’이다. ‘선월통선세’의 상세는 명확하지 않지만 남북으로 긴 대마도의 동서 바다를 왕래하기 위해 대마번 시대에 아소만에 開削된 수로 통행세이었다고 생각된다. ②C에 기재되어 있는 ‘下県郡島山村’는 이 ‘선월’이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증언과도 일치한다. 이런 지역 한정적인 문서를 납세 연기 담보로 인정하고 수취증까지 발행했다는 행위는 상당히 돌발적이고 유연한 현지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 외이문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나아가서 이와 관련하여 확인해 두고 싶은 것이 앞에 언급한 사조 각인이 찍힌 ④D 문서의 내용이다.

大日本山口県周防國大島郡
 冲家宝 平民
 船主 林安太郎
 右之者爲漁業渡鮮願出ニ付大日本対馬

國淺藻ニ於而聞届置候事
 明治廿年八月十五日
 山田荒治□
 大朝鮮国外理衙門
 捧稅官出張所

하야시 야스타로(林安太郎)가 ‘爲漁業渡鮮願出’을 대마도 아소에서 이미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한 문서이긴 한데 대마도에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확인 되지 않고 이 문서를 ‘야마다’가 무슨 목적으로 발행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문서 발행도 지역 한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둔 것임은 틀림 없고 현지 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와 또 다른 현지 재량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③관련 문서군이다. 하시모토 겐파치 앞으로 발행된 문서들은 아래와 같다.

③A

記
 一金參円七拾五錢 七半月分 八月中分
 右正ニ相受取候也
 明治二十年旧八月廿二日
 光緒十三年八月廿二日
 楸子島出張所 印
 山田荒治 印
 橋本源八殿

③B

記

一金壹円貳拾五錢 本納分

一同七拾六錢 白米二斗

ノ貳円壹錢

右之通御座候也

明治廿年八月廿二日 楸子出張所 印

橋本源八殿

③A의 경우는 ‘相受取’라고 쓰여 있어 세금 영수증으로 보인다. 아마다 측이 케이스 ②와 같이 외이문 발행 「수봉절목」에 적혀있었던 세금 액수에 따랐다고 하면⁸⁶⁾ 5-9인승으로 7월치는 반달치(1원25전), 8월치는 한달치(2원50전) 합쳐서 3원 75전으로 계산이 맞는다. 한편 같은 날 1887년 음력 8월 22일(양력 10월 8일)에 발행된 ③B는 금액과 품목만 기재가 되어 있어 청구서가 아닐까 싶다. 여기의 ‘본납분’이 세금을 뜻한다면 ③A와 같은 과세로 반달치가 되겠는데 이것이 7월분의 남은 반달치인지 9월분의 반달치인지 혹은 또 다른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여기서 하시모토는 봉세관에게 구입한 식량인 백미 2斗 값과 함께 2원 1전의 지불을 청구 받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이것도 같은 날에 발행된 아마다와 히라이마가 연명으로 부산항 생선 도매상 오쿠사 타케자부로(大草竹三郎) 앞으로 만든 문서 ③D다. 이 문서 내용은 ‘하시모토에 돈 2원을 청구했는데 소지금이 없어서 부산에서 환(為替)으로 처리해 달라고 한다. 부득이하게 부산 니시마치(西町) 이노(猪野)씨에게 환을 보냈으니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御懇配’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이었다.⁸⁷⁾ ‘猪野’의 정체를 알 수가 없고 금액도 딱 맞지는

86) 앞의 주66.

87) 『山田綴』, 333쪽. 전문은 아래와 같다. 봉투 뒷면에「豊浦郡吉田船橋本源八殿ニ托ス」라고 되어있다. 大草竹三郎 이름은 『山田綴』331쪽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 사료 해석에 있어서는 大阪大学人文学研究科 飯塚一幸教授가 큰 도움을 주셨다. 감사의 뜻을 표한다.

않지만 여기서 為替를 발행한 2원이 ③B에서 말하는 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면 아마도 일행은 하시모토의 어획물을 전제로 생선 도매상을 통해 환을 사용하고 수입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③C 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C

記
 一 鱻 拾六本
 八拾文づつ
 代 壹千貳百八拾文
 内 五拾文 松木代
 ↗
 壹千貳百卅文預り
 右
 捧稅官
 平山 印
 橋本源八殿

상어(鱻)는 하시모토 어획물로 보이고 16마리를 1마리 80文 계산으로 받아 총 1280문인데 여기서 松木代50文을 뺀 1230文이 ‘예치(預り)’로 되어있다. 금액 환산 하고 있는 이상 봉세관 측이 이 상어를 부산의 일본인 생선 도매상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측되어⁸⁸⁾ 앞에 언급한 為替를 둘러싼 상황과

益御安康御消光被成御座大慶之御事ニ奉存候、陳ハ此度山口県豊浦郡吉田村船長橋本源八ト申人より金式円金請前御座候処、所持金無之ニ付釜山為替ニ致シ呉候様申聞候付、不得止其御地西町居住住之猪野殿へ為替ニシテ送付申候間、何卒午御面倒早速夫ニ可相成候様、御懇配ヲ以而同所ニ相渡候様可然御頼申上候、尤も同船之体ハ御家ヲ宿ト定メ万事何事も相頼居候様申聞候ニ付、前文御頼申上候事ニ御座候間、左様御聞得被成下度、此段呉々御頼申上度候也

旧八月廿二日

山田荒治
 平山与右衛門

釜山港 大草様

88) 근세 防長地域에서는 魚間屋仕入制度(어민들에 대해 漁具·餌代·飯米등 필수품, 경비를 전세해

연결된다.

즉 아마다 일행은 어민들을 상대로 한 징세에 부산 일본인 상인들과의 관계에 기반한 환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태도 외아문의 관할을 벗어난 부분이었다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로 소안도 주변에서 이루어진 징세 과정에서 구체적인 외아문의 관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마다의 소안도 파견은 외아문이 대일본 어업 규정 제정 교섭을 전개하면서 계획 실시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실제 아마다 일행의 활동에 대해서는 외아문은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⁸⁹⁾ 이와 관련해서는 외아문이 실제로 어민들로부터 징세된 세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던 점이 상기된다.⁹⁰⁾ 즉 외아문은 아마다사건을 외교 교섭상 이용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일본 어민들로부터의 징세를 본격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아문의 정책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외아문이 전면에서 나서서 징세를 실시하기에는 체제정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외아문은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 넓게 현지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외아문이 쓰는 사람들의 배경과 장점을 이용하는 한편 그들에게도 알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남겨준 것이다. 나아가 그들이 처리한 일들 중에는 폭력 사용이나 도장

주는 대가로 생선 도매상이 어획물 판매, 유통을 독점 지배함)가 정착되었다. 그 하나의 형태로 어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周防国大島郡 같은 지역에서는 어획물의 도매, 전매를 맡은 '商主'들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한다. 그 당시 개항장 부산에서 생선 도매상들의 실태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상업 구조의 영향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木部和昭, 『明治期山口県の魚市場慣行調に見る魚問屋仕入制度の諸相(上)(下) - 近世防長漁業の内部構造・地域類型解明の手がかりとして』, 『やまぐち学の構築』 9号, 10号, 2013.

89) 『수봉절목』에 적혀있는 세금 액수가 「조일통어장정」 체결 교섭 과정에서 볼 때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도 이 상황과 연결된다. 전주66참조. 그런데 체포 후 동래부에 송환된 김만석을 통해 외아문은 징세 현장 자료들을 입수했다. 외아문은 이 자료 수집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점은 지적해 두고 싶다. 酒井裕美, 앞의 논문, 2023, 第四章第三項.

90) 平山 증언에 의하면 소안도 주변에서 모은 돈은 100원 정도였다고 한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로 갔는지 사료에 나오지 않지만 일부는 김만석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김만석은 서울에 올라갔을 때 외아문에 가져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는데 외아문 입장에서는 너무 불확실한 수금 방법이다. 실제로 김만석은 보유하고 있었던 징세금 중 10원을 아마다에게 대출하는 등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 흔적도 있다. 『山田綴』, 358쪽.

위조와 같이 공식적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만한 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외아문은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시키면서 자신의 손은 더럽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야마다사건의 또 다른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김옥균 암살 시도와의 관계다.

4. 김옥균 암살 시도

1) 야마구치 현 경찰의 수사

야마다사건과 김옥균 암살 시도 관련에 대하여 외무성으로 들어온 첫 소식은 1888년 4월 9일 나가사키현 지사 구사카베 요시오(日下義雄)의 내보였다. 그 내용은 어민 징세 실태 조사 후에도 나가사키 현에서 야마다를 비롯한 관련 인물들의 후속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야마다 아라지, 무라카미 에지로, ‘조선인 주련(周連)’의 세 명이 외아문 위탁을 받아 오가사와라 거주중인 김옥균을 암살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며 지금 그들이 취조를 받고 있는 야마구치현으로 조회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외무성에 보고를 올린다는 것이었다.⁹¹⁾ 외무성은 이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내무성으로 통지했다.⁹²⁾

4월 30일 야마구치현 지사 하라 야스타로(原保太郎)는 김옥균 관련 후속 보고를 외무성으로 보냈다.⁹³⁾ 이것에 의하면 나가사키에서의 정보 출처가 앞에 언급한 징세 실행인 나카무라 토키치가 나가사키 시삼재관소 검사에게 한 신고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야마다, 무라카미, 김만석 기타 인사들이 조선 정부에서 김옥균 암살 내명을 받으면서 목적을 달성할 경우 야마다

91) 이 보고에서 ‘주련’은 김만석의 별명으로 설명되어 있다. 『山田綴』, 345쪽.

92) 『山田綴』, 346쪽.

93) 『山田綴』, 373쪽.

를 ‘一道 官長에 취임시킬 것’이라고 적어놓은 두루마리와 돈 3백원을 받았다는 ‘풍설’이 있어 이것을 나카무라가 야마다에게 되물었는데 야마다가 부인했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야마구치 현에서는 아카마세키로 경찰을 파견해 수사를 실시하며 야마다, 무라카미를 신문하였다. 그 결과 충분한 행적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는 하는데 ‘微憑’로 다음 3가지 사실을 정리한 바가 있다.

첫째, 무라카미는 김만석에게서 오가사와라에 있는 김옥균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이다. 무라카미는 추자도에 있었을 때 히라야마에게서 김만석이 김옥균의 ‘담정(探偵)’이라는 소리를 들은 바 있었다. 무라카미는 그 후 나가사키에서 김만석을 만났는데 그 때 김만석이 ‘김옥균이 오가사와라에 잠복중이니 분고 사가세키(豊後佐賀関)에서 튼튼한 배를 빌려 오가사와라로 직항한 다음에 김옥균을 확보하고 조선 정부로 勾引해⁹⁴⁾ 거액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무라카미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이 사실은 그 후 무라카미가 김만석과 다투어 그를 구타한 사건이 있었을 때 김만석이 ‘밀담한 大事’가 들킬까봐 고소를 포기했다는 상황에서도 방증이 된다. 이런 경과에 대해서는 나카무라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둘째, 김만석은 여러모로 수상하다는 점이다. 우선 김만석은 시모노세키에 잠복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인 수속을 밟지 않았다. 나아가 김만석은 신문에서 김옥균 암살과의 관련을 일체 부정하고 김옥균에 대해서는 ‘명치 17년 변후 소재를 모른다고 단언하면서 김옥균이 화제에 오르는 것을 기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마구치현 경찰 경부가 김만석 가방 속에서 ‘오가사와라島’라고 방서되어 있는 서면을 발견했다. 이 서면에 대해 김만석을 따져보니 김만석은 ‘蒼黃’ 해졌다고 한다.

셋째, 나카무라가 타케야마 켄지로(竹山研次郎)⁹⁵⁾ 앞으로 보낸 편지의 존재다. 김만석이 머물고 있었던 泉勝造 집에서 압수된 이 편지는 겉으로는 나

94) 야마구치 현 지사는 ‘謀殺’로 진술하면 일이 커질 것을 두려워한 村上가 사태가 별거 아닌 것 처럼 보이게끔 표현을 바꾼 것으로 분석했다.

95) 竹山研次郎에 대해서는 이 사료 이외에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정체불명이다.

가사키 이와사키 상행(長崎岩崎商行)에서 타케야마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실제 편지는 나카무라가 아마다 앞으로 보낸 것과 나카무라가 타케야마 앞으로 보낸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자의 편지에서 나카무라는 타케야마에게 ‘김옥균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부탁하는 것과 동시에 김만석은 조선으로 송환이 될 테니 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⁹⁶⁾ 이 편지에 대해서 신문을 받은 아마다는 당황하고 한 마디도 못하였다가 결국 나가사키와 시모노세키에서 나카무라와 접촉한 적이 있고 나카무라 편으로 타케야마의 전언을 들었다는 사실도 인정하였다.

아마구치현 지사 하라는 이상과 같은 ‘徵憑’들이 있기는 하나 조선 정부가 일본인을 그렇게 신뢰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일도 관장’이나 ‘금3백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수봉절목」이나 어세징수 허가가 ‘轉訖’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김옥균 암살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봐도 ‘徵憑’들로 봐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로 보고를 마쳤다. 이 보고는 1888년 5월 4일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로부터 내무대신 아мага타 아리토모(山縣有朋)에게 ‘기밀’로 전송되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는데⁹⁷⁾ 그 후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시점 상 4월 24일에 의금부가 올린 박준우 유배 장계가 재가되어 5월5일에는 시모노세키에서 이송된 김만석이 동래부에서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일본 측도 더 이상 추궁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른다.

2) 김옥균 문제와 외아문

이상과 같이 아마다사건 관련 인물들이 김옥균 암살 계획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아마다를 고용한 외아문이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조선 정부가 갑신정변 직후부터 일본으로 도주한 김옥균의 체포, 송환을 요구하면서 일본 측과 교섭을 거듭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

96) 『山田綴』, 375쪽.

97) 『山田綴』, 378쪽.

히졌지만⁹⁸⁾ 우선 여기서는 이런 교섭을 조선 측에서 주로 담당했었던 것이 외아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고 싶다.

1885년 1월, 사건 처리를 위해 파견된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와 ‘特派全權大臣左議政’ 김홍집 사이에 한성조약 체결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교섭 과정에서 김홍집은 김옥균의 체포, 송환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노우에는 김옥균의 일본 도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섭은 김옥균 문제에 관해서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이 교섭의 조선 측 출석자들은 김홍집(전임 외아문 독판)을 비롯해 외아문 독판 조병호, 동 협판 뮐렌도르프, 동 참의 고, 동 주사 윤이며⁹⁹⁾ 필담 기록 관리, 일본 공사관과의 연락도 외아문에서 담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⁰⁾

같은 해 2월, 한성 조약에 따라 조선 정부는 일본으로 특파전권대신 서상우, 부대신 뮐렌도르프를 파견했다. 서상우는 1881년 5월에 외아문 전신인 통리기무아문 부주사(‘事大交隣司’分掌)로 취임돼¹⁰¹⁾ 통리고섭통상사무아문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인 1883년 1월에 주사로 승격한 인물이다.¹⁰²⁾

서상우는 1884년 윤5월에 일단 주사에서 물러났지만 갑신정변 후 같은 해 10월 20일에는 협판 교섭통상사무로 차하되었고 1886년 4월 당시 독판 김윤식의 병가중에는 서리 독판을 맡기도 했다. 일본과견시 서상우는 예조참판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쿄에서 外務大輔 요시다 키요나리(吉田清成)를 상대로 김옥균의 체포, 송환 교섭을 진행해 외무대신 이노우에에게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조일 간에 범죄인 양도 교환에 관한 조약이 없다는 점, 김옥균이 정치범이고 국제 공범 상 국사범을 체포, 송환한 관례가

98) 김성해, 『일본망명자 김옥균 송환을 둘러싼 조일 양국의 대응』, 『大東文化研究』 88집, 2014, 『II 외교 루트를 통한 김옥균 송환 노력』: 김영작, 『김옥균 암살 사건과 한 청 일 三国 -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1집, 1994.

99) 『統署日記』 甲申十一月二十二日.

100) 『日案』, 402, 403

101) 『承政院日記』 제2887책, 高宗18년 5월 27일. 서상우는 부주사를 맡아 1882년 3월 24일에 인천에 머물던 청나라 사신을 대응하는 종사관에 임명되었고(伴接官申樞, 副官金弘集), 같은 해 4월 12일 월미도 앞바다에 영국 선박이 내랑였을 때에도 종사관으로 임명되었다.

102) 『承政院日記』 제2908책, 高宗20년 1월 20일. 서상우는 고종21년 윤5월 29일까지 그 직위에 있었고 그 후 우승지를 거쳐 1885년 2월 시점에는 예조 참판이었다.

없다는 점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서울 주재 각국 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권유도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¹⁰³⁾ 1885년 4월쯤부터 서울에서는 김옥균이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귀국 내습할 거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¹⁰⁴⁾ 이 국면에서 임시대리공사 타카히라 코고로(高平小五郎)를 상대로 김옥균 송환 문제를 교섭한 사람은 외아문 독관 김윤식이다. 김윤식은 타카히라가 ‘매우 집요해서 못 참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빈번하게 서면으로 김옥균 인도를 요구하면서¹⁰⁵⁾ 교섭을 반복하였다.

하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에게 기대가 크지 않았던 조선 측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하려고 했다. 1885년 여름 장은규와 송병준을 일본으로 파견해 김옥균에게 이재원의 비밀 편지-고종은 여전히 김옥균을 신임하고 있고, 강화유수를 맡고 있는 이재원이 김옥균 귀국 봉기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임을 알리는 내용-를 전달함으로써 김옥균 귀국을 유인하려고 계획한 것이다. 이 ‘쿠데타 모의 사건’은¹⁰⁶⁾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오사카 사건의 영향도 있어 조선 정부 뜻대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 관련 정보가 집중된 인물이자 일본 측과의 교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은 바로 김윤식이었다.¹⁰⁷⁾

‘刺客’ 池運永 말에 의하면 그가 김옥균 암살 의지를 민병석에게 전하고 고종을 알현한 것은 ‘쿠데타 모의 사건’이 미수로 끝난 직후인 1885년 12월이었다. 이것은 아마다가 김만석으로부터 처음으로 정세인 권유를 받은 시기와 일치한다.¹⁰⁸⁾ 지운영이 인천을 출발한 것이 1886년 2월, 김옥균이 지운영이 보유하고 있었던 고종의 ‘위임장’을 이노우에에게 보여주고 암살 계획이 조일간 외교문제로 부상한 것이 같은 해 4월이다. 외아문 서리 독관 서상우

103) 김성혜, 앞의 논문, 2014, 341쪽

104) 김영작, 앞의 논문, 1994, 251~252쪽.

105) 타카히라는 김윤식의 서면, 민응식의 내방을 「殆ど煩厭に堪えず」라고 표현하였다. 『日本外交文書』第19卷, 211

106) 김성혜, 앞의 논문, 2014, 343쪽.

107) 『日本外交文書』第19卷, 211, 215

108) 酒井裕美, 앞의 논문, 2023, 第二章第二項.

(김윤식은 병기중)가 임시대리공사 타카히라와 문서 왕래를 거듭하였으나 일본정부의 선택은 김옥균의 오가사와라 추방이었다.

김옥균이 오가사와라에 도착한 것은 1886년 8월 9일인데 직후인 8월 23일 이미 외아문은 타카히라 앞으로 외아문 주사 李源兢을 일본에 파견한다는 통지를 보냈다.¹⁰⁹⁾ 이원궁 파견의 공식적인 목적은 주일 조선공사관 건설 준비였지만 8월 30일에 인천을 출항하여 도쿄에서 이노우에 외무대신과 면회한 이원궁은 김윤식의 조회를 보여주며¹¹⁰⁾ 또 다시 김옥균 송환을 요청하였다.¹¹¹⁾ 이노우에는 통지된 파견 목적과 면담 내용이 다르다며 더 이상의 면담을 거절하고 김윤식 앞으로 회답을 작성해 김옥균 송환 불허 뜻을 밝혔다.¹¹²⁾

이상과 같이 갑신정변 직후부터 김옥균의 처우를 둘러싼 교섭에서 외아문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적 위치에는 아마다 고용시 외아문 책임자였던 김윤식이 있었다. 그 교섭이 쉽게 안 풀리는 상황에서 실제로 ‘쿠데타 모의 사건’, 장은규, 지운영에 의한 암살 계획이 실행되었고 여기에도 외아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외아문이 고용한 아마다가 김옥균 암살에 관여했을 개연성을 높여주는 재료들이다.

그 외에도 김옥균 암살 계획에 아마다와 외아문이 관련되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상황 증거들을 두 가지 들 수 있다.

첫째, 1886년 4월은 지운영에 의한 김옥균 암살 미수 사건이 문제되었던 시점인데 이 때 마침 박준우가 일본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이다. 박준우는 최

109) 『日案』, 718.

110) 전전기외무성기록,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京城說伝) 第三卷』(이하 『金玉均動靜卷三』으로 표기) 1-1-2-4_003, B03030198400, 108~112쪽. 임시대리공사 수기무라 후카시(杉村藩)가 이노우에 외무대신에게 보고한 바에 의하면 1886년 10월 6일 이원궁의 ‘수행인’ 朴琪淙이 인천항으로 귀국해 鄭秉夏, 金嘉鎭에게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日本外交文書』 第19卷, 127. 이 사료에서는 한자 표기가 다르되 오기로 보임) 이어서 같은 해 12월 11일에도 인천항에 安駟壽가 도착하여 이원궁이 김윤식, 정병하 앞으로 보낸 서간을 전달하였다고 한다(『日本外交文書』 第19卷, 128). 이 박기중, 안경수는 모두 다 소통사 출신이고 외아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소통사 출신인 김만석과도 연결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더군다나 이원궁은 도쿄에서 ‘대마도인’과 동숙했었다는 기록도 보인다. 『金玉均動靜卷三』, 130쪽.

111) 『日本外交文書』 第19卷 125.

112) 『日本外交文書』 第19卷 124.

종적으로 아마다에게 지급된 문서를 사적으로 위조한 책임으로 유배된 아마다사건의 핵심 인물이고 김윤식의 측근이다.¹¹³⁾ 또 박준우의 사명은 유학생 귀국 인솔이었는데 그때 박준우와 함께 조선으로 귀국하여 바로 행방 불명이 돼버린 인물로 李樹廷이 있다. 이수정은 1882년 9월 수신사 박영효 일행의 한 사람이었던 민영익의 개인 수행원으로 도일한 후 도쿄외국어학교 한국어 교사로 취임한 인물이고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¹¹⁴⁾ 이수정은 安宗洙와 ‘친구’였다고 하는데¹¹⁵⁾ 안중수는 갑신정변 후 외아문 주사를 지내다가 뒤늦게 1886년 5월에 申箕善이 갑신정변에 연루된 죄로 유배당할 때 함께 유배된 인물이다.¹¹⁶⁾ 이수정 자신도 김옥균과 왕래가 있었던 모양인데 1886월 3월에 무뢰한에게 기습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 기록은 警視廳이 김옥균 주변을 조사한 기록 중에 나온다.¹¹⁷⁾

둘째, 1887년 1월 25일, 수기무라 임시대리공사는 이노우에에게 조선 정부 민응식, 정병하, 김가진등의 기모로 평안도 力士 趙某와 함경도 역사 羅某를 김옥균 암살을 위해 일본에 파견한다는 설에 대해 보고했다.¹¹⁸⁾ 같은 해 4월에는 김학우의 일본 왕래가 김옥균 암살 계획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보고를 부산 영사 무로타 요시후미(室田義文)가 외무성에 보냈다.¹¹⁹⁾ 외무성 지시에 따라 나가사키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¹²⁰⁾ 하지만 이 김학우는 1876년부터 1년 반 쯤 도쿄에 체재하며 그 후 1884년 3월부터 기기국 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이 기기국은 설치부터 김윤식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초대 총판을 지낸 관서였다. 이 김학우의 암살 계획이 문제가 된 1887년 4월은 또 다시 아마다가 외아문에 최종적으로 고용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13) 酒井裕美, 앞의 논문, 2023, 第四章第二項.

114) 李光麟, 「李樹廷의 人物과 그 活動」, 『改訂版韓國開化史研究』, 1974, 248쪽.

115) 이광린, 앞의 논문, 1974, 236쪽.

116) 이선아, 「19세기 개화파의 농서 간행과 보급의 의의-안중수의 『農政新編』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제8권 2호, 2009, 65~66쪽.

117) 『金玉均動靜卷三』, 37쪽.

118) 『金玉均動靜卷三』, 136쪽.

119) 『金玉均動靜卷三』, 138쪽.

120) 『金玉均動靜卷三』, 139쪽.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아마다 아라지 사건의 검토를 통해 개항기 조일 관계 실태와 외아문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세 가지를 밝힐 수 있었다.

첫째, 외아문이 이용하려고 했던 대마도인 아마다 아라지에 대해서다. 외아문이 대 일본 어민 징세인으로 고용한 아마다는 주어진 임무 말고도 들어 어민들의 생필품 확보나 포획 해산물의 가공 판매를 증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과 동시에 조선 정부에서의 고용을 무기로 취급 화물 면세를 주장해 조선 무역에 관여하는 상인들 사이에서도 중개 이익을 챙기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부산에 개항 초기부터 출입했던 대마도 출신자들의 커넥션이 작용되고 있었다. 그들과 접점을 가진 조선 측 인물들은 소통사 출신자들이었다. 외아문의 대일 외교정책이 이러한 인재들의 이용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둘째, 아마다 일행이 실시한 구체적인 징세 양상에 대해서다.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료가 남겨진 몇 가지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 소통사 출신으로 보이는 조선인인 김만석, ‘안선달’의 역할이 컸고 아마다를 비롯한 일본인들은 그들 조선인의 감독하에 주로 무장 어민들에 대한 폭력적인 위협이나 직접 교섭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이 발행한 것으로 추측되는 문서들의 분석을 통해서도 현지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들의 발행은 현지에서 즉석으로 진행됐고 부산의 일본인 상인들을 포함한 대마도 커넥션의 이용이나 일본 측 특수 사정을 감안한 사례들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마다의 고용을 실시하고 외교 교섭상 이용하려고 했던 외아문이 그 시점에는 징세 그 자체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외아문으로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이었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셋째, 아마다사건 관계자들을 이용한 김옥균 암살 계획에 대해서는 외아문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고 일본 정부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야마구치현 경찰 조사로 밝혀진 사실들이나 갑신정변 후 김옥균을 둘러싼 송환요구에서 외아문이 수행한 역할, 김옥균 암살 계획 실행의 변천으로 미루어보아 외아문이 야마다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멀리 오가사와라로 보내 김옥균 암살 시도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일견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絶海の孤島’ 오가사와라에 일단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항해 기술에 그들은 능통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인다.

개항기 조선의 외교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우유부단한 행동을 거듭한 결과 명치유신으로 ‘근대화’ 노선을 잡은 일본에 당했다는 비판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외아문의 정책은 오히려 효율과 현실성을 추구한 것이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유연한 발상을 보였다. 야마다사건으로 말하자면 대마도인 야마다를 소통사 출신자들 밑에 두고 어장으로 보내되 경비 하나 없이 「수봉절목」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조일통어장정」 체결 교섭에 이용했다. 동시에 어장에서는 그들의 현지 재량을 발휘시켜 그들의 배경을 이용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실행이 어려울 수 있는 일들까지 처리하고 오가사와라의 김옥균까지 노리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한 구상으로 전개되는 외아문의 정책들에 대응해야 했던 일본 외무성은 그 저의를 통찰하지 못하고 당황했다. 명치유신 이후 십몇 년 밖에 안 되어 ‘근대화’도 뭐도 아닌 상태의 일본 정부가 노련한 조선 외교에 휘둘리는 상황도 개항기 조일관계 실상의 분명한 한 측면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1. 사료

- 『統署日記』 『承政院日記』 『釜山港關草』 『海隱日記』
『구한국외교문서』 『釜山府史原稿6』
『全羅慶尙諸島諸稅收捧節目』(卍15284-3)

『戰前期外務省記録』
『海外旅券勸合簿』
『韓國亡命者金玉均ノ動靜關係雜件(京城説伝) 第三卷』
『朝鮮國慶尙全羅兩道に於ける我往漁者の情態報告一件』
『朝鮮政府雇山田荒治該政府發給漁稅節目ヲ以テ我漁船ニ對シ徵稅一件』
『本邦人外國ニ於テ商店ヲ開キ營業ヲスル者ノ氏名住所營業ノ種類等取調一件』
『鎮西日報』 『防長新聞』 『朝鮮新報』
『朝野新聞』 『朝日新聞』
内野對琴, 『反故廼裏見』 第十一卷, 對馬歷史研究センター所藏史料

2. 단행본

- 生田清範, 『軍人袖中必携』, 秀英舎, 1888.
石川亮太, 『近代アジア市場と朝鮮 開港・華商・帝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6.
巖原町教育委員會, 『巖原町教育史』, 1972.
上界町誌編さん委員會, 『上界町誌』, 2004.
九學會連合編, 『漁民と對馬』, 関書院, 1952.
酒井裕美, 『開港期朝鮮の戰略的外交 1882-1884』, 大阪大學出版會, 2016.
長崎貿易商同業組合, 『組合史』, 1933.
日韓商業興信所, 『在韓實業家名鑑』, 1909.
農林水產局, 『山口県豊浦郡水產史』 農業と水產社, 1935.
藤間生大, 『壬午軍亂と近代東アジア世界の成立』, 春秋社, 1987.
保高正記・村松祐之, 『群山開港史』, 1925.
宮本常一, 『對馬漁業史』(『宮本常一著作集28』), 未來社, 1983.
吉田敬市, 『朝鮮水產開發史』, 朝水會, 1951.

3. 논문

- 김성혜, 「일분망명자 김옥균 송환을 둘러싼 조일 양국의 대응」, 『大東文化研究』 88집, 2014.
김영작, 「김옥균 암살 사건과 한 청 일 三國-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논총』 11집, 1994.
박한민, 「개항초기 조일간 교역 양상과 구포사건」, 『韓日關係史研究』 第72集, 2021.
이광린, 「李樹廷의 人物과 그 活動」, 『改訂版韓國開化史研究』, 1974.

- 이근우, 「19세기 일본의 어업 침탈과 조선의 대응 -통어장정 체결까지」, 『19세기 동북아 사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東北靑史財團, 2008.
- 이선아, 「19세기 개화파의 농서 간행과 보급의 의의-안중수의 『農政新編』을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제8권 2호, 2009.
- 한우근, 「開港後日本漁民의 침투」, 『東洋学』, 1971.
- 李東勳, 『在朝日本人社会の形成 植民地空間の変容と意識構造』, 明石書店, 2019.
- 姜徳相, 「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 『歴史学研究』 6号, 1962.
- 木部和昭, 「平郡島における舐子役と漁業権」, 『やまぐち学の構築』 7, 2011.
- _____, 「明治期山口県の魚市場慣行調に見る魚問屋仕入制度の諸相(上)(下)-近世防長漁業の内部構造・地域類型解明の手がかりとして-」, 『やまぐち学の構築』 9号, 10号, 2013.
- 木村健二, 「朝鮮進出日本人の営業ネットワーク-亀谷愛介商店を事例として」(杉山伸也, 린다·글로벌編『近代アジアの流通ネットワーク』 第2章, 創文社, 1999)
- _____, 「近代の長崎・対馬と朝鮮」, 『歴史評論』 669, 2006.
- 酒井裕美, 「日朝両国通漁規則(1889年)締結交渉の再検討-済州通漁問題をめぐる朝鮮外交の展開を中心に」, 『上智史学』 第65号, 2020.
- _____, 「山田荒治事件(1887年)をめぐる朝鮮の戦略的外交-開港期の日朝漁業問題一考-」, 『東洋史研究』 82-1, 2023.
- 八嶽友広, 「近世社会と識字」, 『教育学研究』 第70卷 第4号, 2003.
- 山田昭次, 「明治前期の日朝貿易-その日本側の担い手と構造について」(家永三郎教授東京教育大学退官記念論集刊行委員会編, 『近代日本の国家と思想』, 三省堂, 1979).

開港期日朝関係の実像と統理交渉通商事務衙門

—山田荒治事件(1887年)を中心に—

酒井裕美*

1887年の夏から晩秋にかけての漁業期、朝鮮南海、所安島近海に出漁する日本人漁民から、統理交渉通商事務衙門に雇用された徴税人・山田荒治が漁税を徴収していたことが判明した。当時は日朝通漁規則が締結交渉の過程にあり、日朝間で漁税に関する合意は何ら得られていない状態であったため、山田の行為は日朝間の外交問題に発展した。山田荒治事件である。山田事件については、日本外務省記録に簿冊「朝鮮政府雇山田荒治該政府発給漁税節目ヲ以テ我漁船ニ対シ徴税一件」が残されており、この分析を中心に、筆者はこれまで、外衙門の山田雇用経緯、外衙門が作成して山田に付与した徴税実施規則である「全羅慶尚諸島諸税収捧節目」の内容、事件発覚後の日朝外交交渉過程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本稿はさらに、実際に雇用された山田側の事情、徴税の実態、金玉均暗殺事件との関連を解明することで、開港期日朝関係の実像と、外衙門の戦略的外交の具体相について、より立体的な考察を加え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本稿で明らかにできた点は、以下の三点である。

第一に、外衙門が利用しようとした対馬人・山田荒治は、与えられた任務のほか、朝鮮出漁漁民の必需品確保や、捕獲魚介の加工販売を仲介することで利益を得ると同時に、朝鮮政府からの雇用があることを武器に、取り扱い品免税という「誇張」を朝鮮貿易に関わる商人たちにちらつかせ、そこにも介入しようとしていた。そしてその背景には、釜山に開港初期から出入りしていた対馬出身者たちのコネクションが作用していた。

* Osak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Professor

第二に、実際の徴税現場では、小通事出身と思われる朝鮮人・金萬錫、安先達らの役割が大きく、彼らはかなりの現地裁量を発揮していたとみられる。一方山田ら日本人は、朝鮮人の監督下で、主に武装漁民への暴力的威圧、交渉を担当していた。発行文書の分析からは、釜山の日本人商人を巻き込む対馬コネクションの利用や、日本側の特異な事情勘案が背景としてみられる一方、外衙門の直接的な関与はほとんどみられないことが特徴的であった。

しかし第三に、山田らによる金玉均暗殺計画については、外衙門関与の蓋然性は高いのではないかと判断される。山口県警の調査で明らかになった事実や、甲申政変後の金玉均をめぐる朝鮮政府の送還要求における外衙門の役割、金玉均暗殺計画の変遷から勘案するに、外衙門に雇用された山田をはじめとする徴税事件の関連者たちが、金萬錫を通して、当時小笠原島に追放されていた金玉均の暗殺計画に、何らかの関わりをもっていたと思われる。

総じて山田事件をめぐる外衙門の政策は、効率と実現性を追求した、柔軟な発想に基づく戦略的なものであった。老練な朝鮮外交を前に、日本外務省は時にその深意を見誤り、当惑し、振り回された。そのような状況も、開港期日朝関係の確かな一側面であったと言える。

[キーワード] 統理交渉通商事務衙門、山田荒治、漁税、日朝通漁規則、所安島、金玉均